

Trade experts warn that Korea needs to diversify partners

BY KIM JEE-HEE

Trade experts at a forum in Seoul cautioned that Korea needs to diversify its trade partners to ensure its survival as the U.S. midterm results are unlikely to bring a dramatic shift to the country's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Business lobbying group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held its "What Happens Next: U.S. trade policy and U.S.-China trade conflict after midterm elections" forum at the InterContinental Seoul Coex in southern Seoul with about 250 Korean and international participants from academia,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Regardles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or probably even regardless of the change of leadership two years from now, I don't believe there will be significant change with respect to the U.S. trade policy,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China," said Lee Jae-min, a professor at the School of Law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is not just Trump's personal agenda or the Republican Party's agenda," Lee added. "Rather, I think this is the overall reaction of the United States toward global trade in general."

Lee said he believes Trump's trade policies could become more aggressive during the second half of his term to improve his chances of re-election.

Daniel Ikenson, trade policy director at U.S. liberal think tank Cato I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From left, Lee Jae-min, a law professo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iaojie Yu, deputy dean of the 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at Peking University; Daniel Ikenson, trade policy director at Cato Institute; Kim Young-ju, CEO of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Lee Hye-min, visiting professor for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Zhigang Tao, HSBC professor in global economy and business strategy at the University of Hong Kong; and Andrew Polk, partner and co-founder of Trivium China pose for a photo during an international forum held by KITA at the InterContinental Seoul Coex in southern Seoul on Monday.

stitute, said that Trump's tack toward China and other trade partners is actually "more in line with what Democrats have wanted over the years," reaffirming that Democrats taking the House won't mean a shift in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or a trade war with China.

"There is a bipartisan recognition

that China has not been playing by the rules," Ikenson said, adding that there are differing views, however, on whether imposing tariffs is the best way to handle the problem.

Many Americans also feel the country has been too lenient on trade for the last several decades after it helped other trade partners, including

Korea, build up industries after World War II, he said.

Expert projections leave uncertainty over the future of Korea's global trade as the country is heavily dependent on exports and imports with both the United States and China.

"Only a handful of countries will be able to avoid direct and indirect

ramifications of the U.S.-China trade dispute," said KITA CEO Kim Young-ju. "Korea is likely to be among the most vulnerable, due to its proximity to both countries in terms of geography, economy and security."

According to KITA, the two countries currently account for about a third of Korea's total trade and 38 percent of corporate investments.

Ikenson advised Korea to diversify its trade markets and expand partnerships with emerging nations like India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survive through uncertainties caused by the U.S.-China conflict. The trade policy director also suggested Korea communicate a lot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nd request the organization mediate its trade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s for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iaojie Yu, deputy dean at the National School of Development at China's Peking University, said the two countries should try to solve the problem in talks rather than by waging trade wars.

Andrew Polk, partner and co-founder of the Beijing-based strategic advisory firm Trivium China, however, said it will be hard for the two countries to reach a sustainable agreement as they are essentially fighting for leadership in future technologies, not only in terms of trade.

kim.jeehee@joongang.co.kr



‘美 중간선거 결과 평가·통상분쟁 전망’ 국제 포럼 12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 포럼에 참가한 이재민(왼쪽부터) 서울대 교수, 위야오제 베이징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 대니얼 아이켄스 케이트 무역정책 이사,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이해민 서울대 겸임교수, 타오지강 홍콩대 교수, 앤드루 폴크 트리비움차이나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마련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미·중 무역전쟁 최소 2년은 간다”

무역협회 ‘미·중 통상분쟁’ 포럼

트럼프 통상정책 미 초당적 지지
중간선거 결과가 영향 못 미쳐

다국적기업 중국공장 철수하면
중간재 수출 한국기업 큰 타격
관세폭탄 맨 차·조선·반도체 재앙

스웨덴 볼보자동차 본사는 지난 8일 자동차 생산 계획을 변경했다. 미국에서 지난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중형세단(S60) 생산라인을 불과 1개월 만에 멈추고, 중국서 생산하는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XC60)의 미국 수출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산 최고급 세단(S90) 미국 수출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앤더스 구스타프손 볼보자동차 북미시장 총괄 수석부사장은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익률이 감소하면서 생산구조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국 통상갈등이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 포럼에서다.

이는 최근 양국 분위기를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분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했다. 지난 7월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은 “양국이 경제무역 분야에서 일련의 갈등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시진핑 주석과 매우 좋은 통화를 가졌다”는 글을 게재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갈등이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봤다. 중국 소재 컨설팅 업체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미국의 현재 통상정책은 워싱턴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거의 유일한 분야”라며 “(청중들의 기대를 저버려) 죄송하지만, 미·중 통상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왼쪽)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중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내빈들 소개에 박수를 치고 있다. [뉴시스]

분쟁은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 힘든 비관적 분야”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된 최근의 미국 중간선거 결과도 통상 분쟁 완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트연구소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보호주의 무역을 옹호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미국 하원의 변화가 미·중 무역분쟁 완화에 이어지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현실적으로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제한할 수 있는 비토권은 상원·하원 양측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해야 행사할 수 있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한국·일본·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현재의 통상정책을 최소한 향후 2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한국 수출기업은 이런 현실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제는 미·중 통상 갈등 장기화가 국내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폴크 대표는 “미·중 통상갈등 상황은 결국 양국의 미래 기술 패권 다툼”이라고 규정하면서 “중국에 자리 잡은 다국적기업의 제조공장이 철수하면 이곳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마오제 중국 베이징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양국 갈등이 격화해 중국이

미국 제품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런 경우 미·중 양국 교역이 크게 감소하는데, 한국도 실질국내총생산(실질GDP)이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미·중 통상 분쟁은 일부 소규모 교역국을 제외하면 모두가 패배하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수정안에 서명했다. 당시 한국은 이 법안 적용을 면제받았지만, 대신 면세 범위(2015~2017년 대미 철강 수출 평균의 70%)가 제한됐다.

또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승용차 관세(2.5%)를 최고 25%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민 교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자동차에 적용하고 조선·전자·반도체까지 확산한다면 한국에 재난 수준의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제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미·중 통상 분쟁이 계속되면 글로벌 다자 통상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축소하려면 여러 국가가 협력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트럼프 對中 무역공세 더 거세질 듯…韓 피해 우려”

무역협회 ‘美 통상정책’ 세미나 철강·車 대상 ‘확장법 232조’ 타분야로 확산될 가능성 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공화당을 누르고 하원을 탈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오히려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강해지면서 인접 국가인 한국도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코엑스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2년간 재선을 위해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뤄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수 있어 한국 기업에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는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인 케이트(CATO)연구소의 대니얼 아이켄슨 무역정책 이사는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민주당이 추진한 통상정책 기조”라며 “미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통상 압박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고 강조했다.

컨설팅업체 트리비움차이나의 앤드루 폴크 대표는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크 대표는 “미국과 중국은 미래 기술 주도권을 두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합의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분쟁이 장기화하면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조정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한국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과 경제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트럼프, 조선·반도체로 보호무역 확대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간 수입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벌였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관세압박 조치를 중간선거 이후 다른 영역까지 넓힐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데다, 남은 임기 동안 재선을 위해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가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서 확인한 44%라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기존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이 조선, 전자기기, 반도체 등으로 퍼지게 될 것”이라며 “이미 한미

무역협회 국제포럼서 전망 “美 중간선거 지지율 44% 발판 중국과의 통상분쟁도 심화 가능”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미국의 통상 칼날을 막는 수단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중 통상분쟁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측 발표자로 나선 중국 컨설팅기업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루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미중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과정을 봐

도, 워싱턴 정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는 유일한 분야가 미중 통상분쟁”이라며 “미국의 거의 모든 사람이 중국의 무역 행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이 오히려 불만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 지강 교수도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수출의 약 40%는 생산비용이 낮은 중국 현지에 공장을 지은 다국적 기업에서 비롯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제재를 통해 이를 미국으로 가져오려 한다는 것이다. 지강 교수는 다만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서 60%는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중국이 다국적 기업에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우 기자

“미·중 갈등 장기화 전망 국내기업에 부정적 작용”

무협 美중간선거 결과 평가 포럼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 포럼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 하고 이는 국내 기업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임기 후 반 2년 간 재선을 위해 더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한 제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 있는 컨설팅 업체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 역시 미·중 통상갈등 상황이 미래 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인 만큼 양쪽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이는 중국 내 글로벌 제조공장의 철수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중간재 수출 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타협할 가능성도 낮게 점쳤다. 타오지강 홍콩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씹크탱크 케이트(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에 대해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 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일기자

[포토] 한국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 개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8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서울 삼성동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 교수, 위묘오제 북경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 다니엘 아이켄슨 CATO(케이토) 무역정책이사, 김영주 회장, 이혜민 서울대 겸임교수, 타오지강 홍콩대교수, 앤드류 폴크 트리비움차이나 대표

이번 포럼은 미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외 주요 기업·정부·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니엘 아이켄슨 CATO(케이토) 무역정책이사가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 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차수 선임기자chasoo@segye.com

[포토] 개회사하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8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 승리에도 美 대중 통상압박 지속...한국 피해 우려"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포럼



(서울=연합뉴스)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주요 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민 서울대 교수, 위묘오제 북경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 다니엘 아이켄슨 CATO(케이토) 무역정책이사, 김영주 회장, 이해민 서울대 겸임교수, 타오지강 홍콩대교수, 앤드류 폴크 트리비움차이나 대표. [한국무역협회 제공] photo@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미중 통상압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봤다.



(서울=연합뉴스) 다니엘 아이켄슨 CATO(케이토) 무역정책이사가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photo@yna.co.kr (끝)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크 대표는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12일 서울 인터컨티넨탈서울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photo@yna.co.kr (끝) bluekey@yna.co.kr

김영주 무협 회장 "美中 통상분쟁으로 세계경제 위기"

"파장 최소화 위해 여러 국가들 협력방안 모색해야"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12일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 개최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12일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 개최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무협]

이날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국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 미중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는 미국 싱크탱크 케이트(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그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조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

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ussu@newspim.com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서울=뉴스시스】박주성 기자 =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트럼프 재선 위해 공격적 통상 정책...韓기업 부정적 영향"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對)중국 통상 압박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 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한 자리다.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해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 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 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중 통상 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 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케이트(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 동의를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 동안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 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

역주의 기초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중 통상 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 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통상 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위야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 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 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협, 미·중 통상분쟁 포럼 개최..."중간평가 트럼프, 보호무역 유지 가능성"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 개최



무역업계에선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양국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개회사에서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은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씽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이재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중국 측 발표자들의 미국의 대중 제재 실패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가 아닌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경대학교 국가개발연구원 위 마오제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 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트럼프, 임기 후반 더 공격적 통상정책 우려"...무협,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 재선을 위해 임기 후반 2년간 보다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상분쟁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도 재조정,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12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이 개회사했다.(사진:무역협회)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해 미국과 중국 통상 전문가가 제시하는 양국 통상분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했다.

김영주 무역협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은 '반환점 앞둔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어떻게 되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 민주당은 하원 통제권을 회복하고 공화당은 상원을 장악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은 '미·중 통상갈등,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앤드류 폴크 트리비움 차이나 대표는 “무역 분쟁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통상분쟁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고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발표자인 타오지강 홍콩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묘오제 북경대 국가개발연구원 부원장은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입장에서조차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중간평가 받은 美, 中압박 지속할 것...韓에 부정적"(종합)

무협 12일 미중 통상분쟁 전망국제포럼

"트럼프, 재선위해 공격적 정책 택할 것"

美공급망 교체·中진입장벽 완화는 기회



【서울=뉴스시스】박주성 기자 = 다니엘 아이켄슨 케이트 연구소 이사가 12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국제포럼'에서 '2018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통상정책 전망'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스시스】박주연 기자 =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하원 탈환, 공화당의 상원 수성이라는 결과를 받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한국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씹크탱크 케이트(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에 참석,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이켄슨 이사는 "1930년대 루즈벨트, 오바마 대통령까지 무역은 윈윈전략이라고 봤고, 이를 지원해왔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을 승자와 패자가 있는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보호주의를 통해서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 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관세를 매기고 보호주의무역조치를 취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보여왔던 태도이고, 이 때문에 하원 다수당이 됐다고 해도 트럼프에게 큰 항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는 다변화가 필요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많이 의존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트리비움차이나 앤드류 폴크 대표 역시 "불행하게도 앞으로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며 "미중무역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워싱턴가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슈가 미중무역분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촉매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비동조화(디커플링)"이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늘어나며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반도체와 국가안보 관련 부문에서는 완전히 공급망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양국간)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며 "한국기업은 단기적으로 미중관계로 인해 난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미국의 디커플링이 지속되고 아시아의 공급망 구조가 완전히 붕괴될 경우 한국기업들은 중국기업과 상생관계가 아니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다"며 "한국은 사이버보안 등의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고, 양국간 긴장을 완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중무역전쟁이 한국에 좋을 수도 있다"며 "한·미·중 관계는 더 좋아질 수 밖에 없고, 중국 시장 역시 진입장벽을 낮춰 더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이재민 교수는 "중간선거 결과 44%의 지지를 받았고, 이는 현재의 통상정책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조선이나 전자기기, 반도체까지 확산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가 있다해도 한국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오지강 홍콩대 교수는 "중국은 이번 무역전쟁의 피해자"라며 "일본의 경우 도요타가 지엠과, 토시바가 GE와 치열하게 격돌하는 등 긴밀한 경쟁이 있었지만,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일부고, 미국 기업의 생산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해 투자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하지만 무역전쟁은 중국 기업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국기업을 약하게 만들 것이며,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의 전략은 정부의 지원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다국적 기업을 더욱 지원하는 것"이라며 "가장 좋은 사례는 테슬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있거나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중국에 투자할 적기"라고 말했다.

베이징대 국가개발연구원 위 마오제 부원장은 "미국의 주장은 중국은 세계공급망에서 하위단계에 머물러야 하고 미국은 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중국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중간재를 사들여 중국이 제조하는 것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본 나라인데 지금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모두가 무역 불균형 해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전쟁보다는 대화로 풀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도 다자 및 지역 무역체제 안에서 개방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에는 국내외 주요 기업, 정부, 학계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주 무협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들이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newsis.com

"민주당 승리에도 미국 대중 통상압박 지속할 듯"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은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한국무역협회가 오늘 서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린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 우리에게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미·중 통상압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앞으로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